

예술가와 예술가 숲에선 생긴 기이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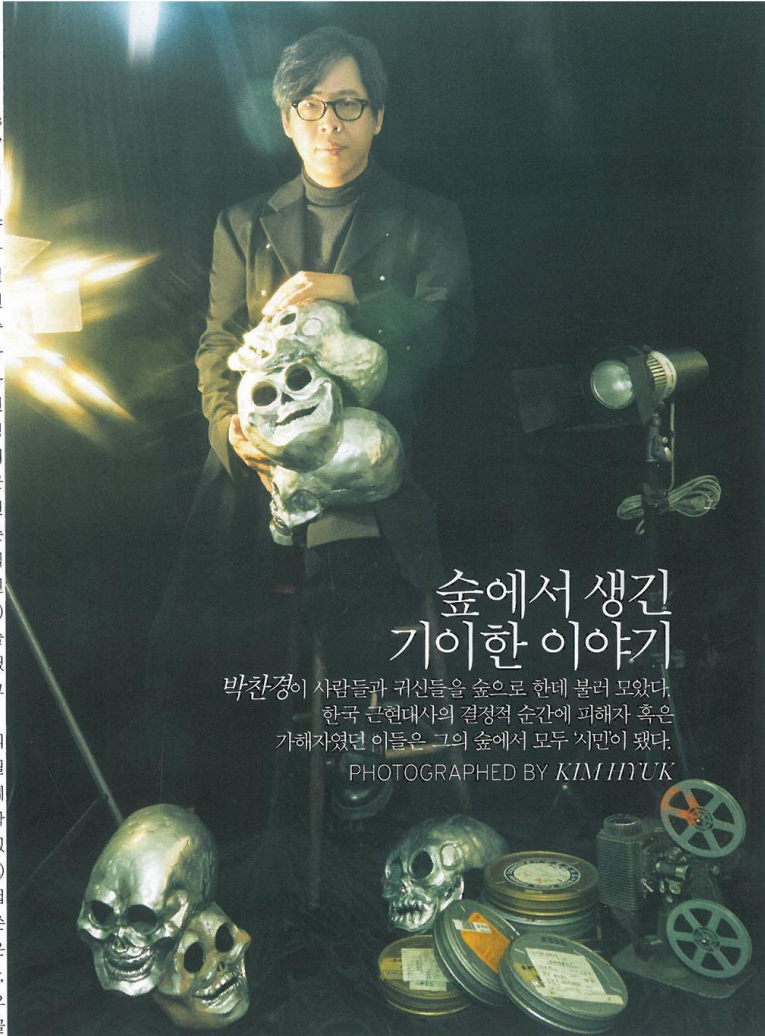
November, 2016 | 에디터 윤혜정

page 1 of 3

● “신작 ‘시민의 숲(Citizen’s Forest)’에 귀신, 간첩, 할머니가 모두 나와요.(웃음)” 타이베이 파인아트뮤지엄의 카페에서 만난 박찬경이 말했다. 우리는 2년 전 그가 예술감독을 맡은 미디어 시티서울 비엔날레의 인상적인 개막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테마의 그해 비엔날레는 이상순 만신의 서울새남궁이 열었다. “여기가 원래 재판소 자리라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많아. 오늘 다 극락 가는 거야. 세월호에 죽은 사람들 원혼도 달래야 해..” 박찬경은 연신 조아렸고 외국 작가들은 만신이 건네주는 제주를 음복했다. 영화 《만신》의 주인공인 김금화 만신은 쫓겨 머리로 객석에 꿇듯 앉아 있었다. 이날의 풍경은 여전히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강렬하게 인식되어 있다. 이 망자천도국은 세월호라는 사건 직후 균열된 2014년의 현재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으로서의 과거, 이를 관통하는 근현대사와 험준한 시대를 살아낸 모두를 위한 의식이었다. 목적의식으로 구조화된 미술관 혹은 첨단 미디어로 점철된 비엔날레가 기괴한 산 자와 죽은 자의 영매(미디어) 노릇을 한 그 순간은 ‘한국(혹은 아시아)의 ‘현대미술’이 무엇이 할 수 있는지, 우문의 현답이 되기도 했다. 지나친 운명론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숲은 그때 이미 그곳에 존재했음지도 모르겠다.

서울이 아니라 타이베이에서 말하자면 ‘시민의 숲’의 월드 프리미어가 열린 셈이다. 영상이 시작될 때, 나는 새벽녘의 숲에 다다른 듯했다. 시민의 숲에는 작가의 말처럼 귀신, 간첩, 할머니뿐만 아니라 학생도 있고, 법관도 있고, 군인도 있고, 사냥남도 있고, 등산객도 있다. 정확하게는 (가짜인 걸 알아드) 귀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여자들이 있고, 간첩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남자들이 있다. 선배를 쓴 여학생은 2010년대에서, 교편복을 입은 남학생은 1970~80년대에서 왔을 테다. 이들은 시간과 공간, 소속과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소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돌고, 해골 털을 뒤집어쓰고 군악대처럼 행진하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숲을 미시고, 꽃을 흔들고 의문스럽게 숲을 탐색한다. 중국에는 망건, 칠성사이다, 돼지 저금통, 부채, 머리카, 운동화처럼 각종 일상생활 소품이 복두칠성처럼 동등 떠다닌다. 이 장면 때문이었는지, 30분 남짓한 영상을 보고 나니 이미 하루를 다 산 듯한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를 지배했다.

“두 가지에서 출발했어요. 오윤 화가의 그림 ‘원귀도와 김수영 시인의 시 ‘거대한 뿌리’ 그리고 영화를 한 편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른바 예술영화다 보니 투자가 잘 안 되어서..(웃음) 영화는 포기하고 대사가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 중심으로 가보자고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 소스가 결합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일종의 알레고리로 보여주게 되었죠.” 과연 시민의 숲에는 내려티브가 아닌 이미지가 나열된다. 그 이미지가 지미라도 뒤섞이기 때문에 자칫 이 ‘진실의 숲’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엄습한다. 엉뚱하게도 나는 1980년대 초인 일곱 살 때 새로 이사간 낯선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잃었을 때가 떠올랐다. 꿈



숲에서 생긴 기이한 이야기

박찬경이 사람들과 귀신들을 숲으로 한테 불러 모았다. 한국 근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에 피해자 혹은 가해자였던 이들은 그의 숲에서 모두 시민이 됐다.

PHOTOGRAPHED BY KIMINUK

인지 생시인지 여전히 모호한, 이상한 느낌. ‘기이한’ ‘묘한’ 등의 단어로 풀이되는 ‘언캐니’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정서다.

“비슷하게는 ‘Unheimlich’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어요. ‘Unhomeliness’, 즉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낯설다는 뜻이에요. 현대를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통, 과거 등을 대할 때의 느낌이 있어요. 식민지, 전쟁, 급속한 근대화 등 외부에 의해 큰 변화를 겪어야 했던 한국 사람들이 과거를 대할 때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친숙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낯설기도 한 이중적인 감정 혹은 감정이죠. 그렇다고 외계의 것인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언캐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원귀도와 거대한 뿌리’ 둘 다 이런 감성을 담고 있어요.”

며칠 전, 사진 촬영을 위해 청운동에 위치한 박찬경 작가의 작업실에 다녀왔다. 온갖 종류의 철학서, 미학서, 인문서로 가득 찬 책장을 등지고 은색 해골 여섯 개가 줄지어 앉아 있었다. 망건, 북한군 모자, 꽃 장식, 등산 모자, 깃을 쓰고 있는 해골들. 이 작은 풍경은 21세기 예술가인 박찬



경이 오윤과 김수영의 날 선 시대정신을 어떻게 결합시켜 다시 자신의 영상 언어로 풀어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시민의 숲'의 파노라마 형식의 화면은 두루마리 형식이었던 '원귀도'를 반영한 것이다. 해골 탈을 뒤집어쓴 일군의 무리들이 아랫도리를 벗은 채(홍표한 남성성을 드러내며) 걷는 장면 역시 '원귀도에서 목없는 귀신과 해골 무리가 행진하는 장면'으로부터 가져왔다. 한편 여기,

박찬경의 작업실 안 해골들에 얽힌 각종 모자는 시민의 숲에 등장한 인물들의 면면을 상징하는데, 물건들이 동등 떠다니는 장면은 바로 '거대한 뿌리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 ...요강, 망건, 장축, 종모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꿈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 제3인도교의 물 속에 박은 철근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썩벌레의 숨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급격한 발전이 빛어낸 기이한 촌극을 오윤이 힘과 한이 서린 그림으로, 김수영이 천상과 지상을 오가는 아방가르드한 시적 언어로 풀어낸 것처럼, 박찬경 역시 1997년 데뷔전 이래 지속적으로 근현대사에 몰두해왔다. 식민, 냉전, 분단, 남북문제 등으로 시작된 화두는 폭력적인 시대에 상처 입은 우리 안 전통의 문제로, 그리고 질곡의 시기를 겪어낸 사람들의 존재로 확장되었다. 그가 소환한 이들은 모두 뒤틀린 근현대화의 과정에 있었거나 그마저도 누락되어 없는 듯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었다. 혹자는 그의 작품을 두고 건조하다 비판하지만 그의 시선이 경계와 경계, 생과 사를 넘나들 때마다 경외나 비애감이 다가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시민의 숲'에서는 그의 마음이 소리를 통해 전달된다. 샹셋소리, 제주도 할망의 노랫소리(그는 80년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직감적으로 골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주와 진도의 노래라 깜짝 놀랐다고 했다), 빗소리 등이 화면의 끝에서 끝까지 다가왔다 멀어짐을 반복한다. 그런데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살아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박찬경이 만든 인양공예예술프로젝트(10월 15일 오픈)의 트레일러 영상에서, 갯가에 쪼

그리고 앉아 채집한 소리가 인양이라는 도시의 일상과 예술의 상관관계를 담담하게 내레이션 하듯 말이다.

"동학, 광주, 전쟁, 세월호... 시민의 숲에는 에피소드가 아주 구체적이지도, 아주 추상적이지도 않게 존재해요. 무마에 가까운 이미지랄까요, 세월호 사건이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후로 언론, 정치, 행정 모든 것이 양망진창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문에 의지했죠. 그래서 어떤 사건, 사실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미지 자체를 소문처럼 보이게 했어요." 신악과 호오를 구별할 수 없는 얼굴로 물끄러미 카메라를 쳐다보는 이들은 질문을 던진다. 지나치게 감성적이지만 지나치게 빨리 잊고, 지나치게 엄숙하지만 지나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사는 것에 대해, 역사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또 세월호 이야기? 그래요, 아니에요. 더 해도 되고 더 많이 해야죠. 작가는 문화적인 민감도와 책임과 가치를 생각하는 이들이지, 자아를 끌어내지 못해 언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작업만큼은 윤리적인 것에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이 안 그러면 누가 그러겠어요?"

'시민의 숲'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건 박찬경이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온 근현대사의 편린을 공식적, 통시적인 이미지로 종합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지만 산뜻하고 무섭지만 투명하여 때로는 유머러스하기 때문이다. '귀신은 트라우마를 상징해요. 하지만 여기 귀신들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네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다 아는 것처럼 굶어(웃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걸어 다니고, 막 걸러나 마시고, 과일이나 짬이 먹고, 할머니가 영당을 때리고, 누군가가 훑쳐보고, 감지도 찢어 먹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기도 하면서 역사적인 걸 연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무리한 접붙이기로 기행이 되거나 찢어져 퍼투성이 된 우리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라는 김수영의 시구처럼, 콤플렉스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귀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를 보낸다. 한 여인이 관객들에게 복(福)자를 손가락으로 써준다. 할머니의 고운 모시 직삼은 바람에 나부낀다. 인터뷰 초반, 그가 깨운 하지만 겸손한 목소리로 "제 작업이 맘에 든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애정도 많다고 결과도 맘에 들어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에디터 윤혜경 스타일 에디터 남현지

헤이 한결 메이크업 홍현정 세트 스타일링 최서윤(Darac)

